

예장 통합측 군선교 비극과 비전2020운동



김수진 목사

1. 머리말

한국교회는 흔히들 “황금어장”이라 하면 군부대를 말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학원선교, 그 다음은 교도소 선교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2002년에 접어들면서 한국교회의 성장은 둔화되었고 2003년에 들어서면서는 대형교회의 세습과 비리 등으로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교세는 계속 감소현상에 접어들었다. 여기에 주5일제 근무를 실시하면서 많은

-
- 약력: • 미국 코헨대학교 신학부 신학박사
• 예장(통합) 교육부 총무
• 중앙신학대학원대학교 학술원장

교인들이 가족과 함께 레저를 타고 야외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역시 교회 출석이 저조한 데다가 청년들이 일반적으로 교회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청년들이 교회를 보는 시각은 상당히 비판적이다. 교회는 교인을 위한 교회가 아니고 세상을 위해 존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자신들의 교회만 대형화하려는 물량 제일주의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의미를 찾지 못한 채 청년들은 세상적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

2. 한국 군선교의 시작과 한경직 목사

1) 한경직 목사는 군선교의 원조이다

한경직 목사는 일제의 식민지 시대에 미국에서 유학하고 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일본 경찰의 감시를 받다가 결국은 신의주 제2교회에서 쫓겨나야 하는 신세가 됐다. 그는 그 길로 남신의주에 보린원을 설립하고 오고갈 데 없는 노인들과 고아들을 모아 놓고 조국의 해방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생활을 보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1945년 해방을 맞이하자 곧 신의주로 올라가 치안을 담당하면서 일본인들을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돌보았다.

그런데 난데없는 소련군이 진주하면서 교회를 탄압하고 있었으며, 이때 한경직 목사는 민주주의를 실현하여 힘있는 나라로 독립을 해야 한다면서 신의주 제1교회를 시무한 적이 있는 윤하영 목사와 함께 한국 정당사에서는 최초로 기독교 사회민주당을 조직하였다. 이미 한경직 목사나 윤하영 목사는 미국에서 민주주의를 배워왔기 때문에 이를 실현하려고

많은 젊은 청년들을 모았었다. 여기에 소련군이 진주하자 공산당이 등장하면서 기독교사회민주당으로부터 위협을 받아 이 조직체를 탄압하고 나섰다.

공산당들은 지방 불량배들을 대수하여 닥치는 대로 폭력을 행사했고 농민들을 선동하여 기독교인이나 지주들을 협박했다. (김양선 해방기독교10년사, 63쪽,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 1955)

생명에 위협을 느꼈던 한경직 목사와 윤하영 목사는 월남을 결심한다. 1945년 10월 초순 두 사람은 트럭과 달구지와 기차를 번갈아 타면서 월남하기 시작하였다. 개성에서 미군의 검문을 받고 이들의 협력으로 서울에 무사히 도착을 하였다. 한경직 목사는 그의 절친한 친구 송창근 학장의 덕택으로 조선신학교(현 한신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일본인의 가옥인 중구 저동 일본 천리교 경성교구 건물을 인수받아 조선신학교 여자학부 부장으로 여자신학생들을 가르쳤다. 그때 이북에서 월남한 신의주 제2교회 교인들이 모여들자 어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일제 식민지 시대 경성교구 건물에 배다니 전도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1945년 12월 첫 주일 예배를 드린 것이 오늘의 영락교회 출발이 됐다.

그런데 1950년 6월 25일 뜻하지 않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당시 KNCC 총무로 재직하고 있던 남궁혁 목사의 주선으로 서울 시내에서 목회하는 목사들이 종로 2가에 있는 대한기독교서회에서 긴급 회의를 가졌다. 이때 월남했던 대부분의 이북 출신 목사들은 서울을 사수하자고 하였지만 막상 인민군

이 서울을 점령하자 한경직 목사는 교인들이 등을 밀어 마포 쪽으로 가서 할 수 없이 쪽배를 타고 도강하게 됐다. 때마침 안양 쪽으로 달리는 군용차에 다른 군인과 부상병들과 함께 한경직 목사도 군 트럭에 몸을 맡기었다.

이 과정에서 한경직 목사는 김홍일 장군을 만나게 됐다. 김홍일 장군은 한경직 목사와는 평북 오산중학교 동창으로서 육군사관학교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전쟁이 터지자 사관생도들은 한 사람도 남김 없이 소위로 임관하여 일제시대 구식 장총을 들고 전선으로 달려가서 인민군과 교전을 벌였다. 그러나 힘에 밀려 철수하면서 안양에 집결하게 된 것이다. 이때 김홍일 육사 교장은 한경직 목사에게 부탁을 하였다. 안양초등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군인들에 대한 정신 훈련을 부탁한 것이다. 이때 한경직 목사는 기도하는 가운데 훈련 중인 군인들을 연병장에 모아 놓고 훈화 겸 설교를 하였다.

이렇게 여러 장병들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든든합니다. 나라를 지키겠다는 여러분들의 그 의지 하나를 봐도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모르긴 해도 미국을 비롯한 우방 국가들이 우리를 돕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김수진, 아름다운 빈손 한경직, 82쪽, 홍성사, 2000).

한경직 목사는 이때 목사로서 처음으로 군인을 모아 놓고 설교를 하였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평생토록 군선교에 관심을 갖게 됐으며, 1951년 1. 4 후퇴 때에는 부산에 실려오는 부상병들을 그냥 놔둘 수 없어서 친히 부상병을 찾아다니면서

서 위로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군선교에 관심을 가졌던 한경직 목사는 상경 후 영락교회가 자리를 잡자 전도부 안에 군선교 담당 팀을 조직하여 매월 1회씩 본인이 직접 전방에 나가 설교를 하고 세례를 베풀기도 하였으며, 본인이 갈 수 없을 경우는 전도담당 목사였던 노기원 부목사를 보내기도 하였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에서도 군대를 “황금어장”이라 외치면서 군선교에 앞장섰던 한경직 목사처럼 한국교회에서 있어서 군선교가 차지하는 위치가 막중함을 느꼈다. 초교파적으로 군선교를 이끌고 조직적으로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사무실이 요청되자, 영락교회에서는 여전도회관 5층에 한국군선교복음화연합회를 위해 “한경직 기념관”을 선포 내놓기도 하였다.

2) 한경직 목사는 누구인가

마펏(한국명, 마포삼열) 선교사와 그의 조사 한석진(후에 장로회신학교 제1회 졸업을 하고 목사가 됨)이 조랑말을 타고 평양으로 돌아가던 중 길을 잘못 들어 그만 한경직이 살고 있는 간리라고 부르는 산골 마을에 접어들고 말았다. 간리는 평남 평원군 공덕면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 마을에 도착한 마펏 일행들은 그날 밤 그곳 어느 사랑방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됐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한 씨들이 20여 가구에 모여 살던 이곳에 사랑방 예배를 드린 것이 훗날 반작교회의 시작이 됐다.

평원군 공덕면 간리, 작고 외진 곳이지만 이렇게 우연치 않은 일을 계기로 만날 때마다 교회 종소리가 울려 퍼지던 이 마

을의 한 농가에서 한도풍과 청주 이씨의 맏아들 한경직(韓景織)이 태어났다. 1902년 음력 12월 29일이었다(김수진 아름다운 빈손 한경직, 20쪽).

이때부터 한경직은 기독교적인 분위기에서 성장하게 됐으며, 그가 서당에 갈 나이가 됐을 때에 반작교회에서는 진광소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다. 때마침 주일학교를 다니던 한경직은 자연히 진광소학교에 입학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였다가 다시 오산학당으로 진학하였다. 이곳에서 생활하던 한경직은 조만식 교장을 만나 민족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자라기 시작하였다. 이곳에서 중학교의 전 과정을 마치고 숭실전문학교에 진학을 하게 된다. 평양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조만식 교장의 추천으로 평양 선교부 방위량 선교사 개인 비서로 일을 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게 됐다. 그가 졸업반 무렵 방위량 선교사와 함께 황해도 구미포 해수욕장에 가게 됐다.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해수욕장을 걷고 있는데 난데없이 이상한 음성이 들려오고 있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 이때 한경직은 그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이제부터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였다. 이것이 그가 진학을 하게 된 전부였다. 이러한 사실을 방위량 선교사에게 이야기하자 선교사는 너무 좋아서 그를 미국에 있는 엠폴리대학에 보냈다. 유학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한경직은 그곳에서 1년간 철학과 심리학을 연구한 후 1926년 그 유명한 프린스턴신학교에 입학하게 됐다.

프린스턴에서 수학하는 기간은 개인적인 경건과 학문적 권위를 겸비한 목회자로 훈련 받는 기간이었다. 한경직은 성실하게 공부했고 식당에서 일하면서 학비를 보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학생회 회장으로 활약을 했으며 영어로 설교를 잘하는 학생으로 소문이 났다(김수진, 위의 책, 32쪽).

그런데 그가 졸업할 무렵 뜻하지 않게 결핵을 앓고 만다. 이 충격에 그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결핵요양소 병원에 입원을 하고 요양을 받게 됐다.

저는 고독한 병실에서 참으로 캄캄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단 2, 3년 동안만이라도 내 겨레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템플턴 상 수상연설문, 3쪽).

한경직은 프린스턴신학교를 마치고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1932년 만 8년 만에 귀국길에 오르게 됐다. 그리운 가족을 만나 하루하루 생활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이때 조만식 장로를 만나 그가 이사장으로 있던 평양 숭인상업학교 성경교사 겸 교목으로 일을 하게 됐다. 그때 일본은 철저한 배미사상을 가졌던 때라 한경직을 친미파로 몰아서 그곳에서 쫓아냈다. 다행히 신의주 제1교회 윤하영 목사의 소개로 신의주 제2교회 목회자로 청빙받으면서 그곳에서 첫 목회가 시작됐다. 늦게 목사안수를 받고 목회한 한경직 목사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다. 어느덧 그의 소문은 전 신의주에 알려지고 교인들이 매주 모여들자 어느덧 3,000명에 육박하게 됐다. 이

렇게 해서 한경직 목사와 교인들은 힘을 모아 신의주에서 아니 평안북도에서는 제일 큰 교회로 신축을 하였다.

그는 동분서주하면서 민족 복음화는 군복음화로 출발한다고 외쳤다. 특별히 그는 1984년 한국기독교선교 100주년 기념사업회를 조직하고 총재로서 큰 업적을 남기었으며, 1990년에는 북한의 기아를 돕기 위해서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본부”를 결성하고 그 해 7월에 홍콩을 통해 쌀 1만 가마를 북한에 보내기도 하였다. 이상의 일들이 인정되어 1992년 4월에 종교인들에게 주는 노벨상과 같은 “템플턴 상”을 수상하게 됐다.

먼저 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축복해 주셔서 한국 교회를 위해 일하도록 이 상을 주셨습니다(템플턴 상 수상기념 축하예배 인사말 1992).

그 동안 한경직 목사는 일제의 강제에 의해 신사참배를 했던 일을 평생에 가슴에 안고 다녔지만 템플턴 상을 받는 순간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살게 됐으며, 2000년 4월 19일 98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하였다. 남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가 남기고 간 말은 통일이 되면 백두산에서 소나무를 깎아 고향에 있는 반작교회를 짓고 싶다는 말뿐이었다.

3. 군목제도 신설과 군선교

1) 정훈 장교로 출발

우리 나라 군목제도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 국방부가 조직되면서 출발하게 된다. 이때 국방부에서는 육군, 해군, 공군 이렇게 3군이 있었지만 모든 것이 미비한 단계였다. 때마침 해군 참모총장이던 손원일 제독은 손정도 목사(상해임시정부 의정원 초대의장)의 장남으로서 정훈 장교로 정달빈(감리교 목사)을 임관시키고 정훈 활동을 하였다. 정달빈은 목사였기에 그의 정훈 활동은 당연히 기독교 선교운동이 전부였다. 육군과 공군도 정훈 활동을 하였지만 일반 장교들이었다. 그러나 한국전쟁으로 인해 해군 정달빈 목사의 정훈 활동 업무 중 군선교의 길은 일시 중단됐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 북감리교 쇼우(W. E. Shaw) 목사와 천주교 캐롤(G. Carroll) 신부가 미 8군의 군목 문관으로 입국하였고 이어 한국군 군목제도가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1950년 9월 18일 장로교, 감리교, 구세군, 성결교, 천주교가 “군목제도 추진위원회”를 조직하고 대표로 장로교의 한경직 목사, 감리교의 유형기 목사, 천주교의 캐롤 신부를 선출하였다. 이들은 그 다음날 이승만 대통령을 방문하여 군목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하여 청원하였다(이용찬 한국기독교사총론 658-659쪽, 소망사, 1994).

이들의 수고로 각 종교단체에서 예산을 세웠으며, 군목의 신분은 문관으로 하여 군목제도를 승인받게 됐다. 이러한 결과로 1950년 12월 21일 대통령 비서실 지시로 종군 목사가 각 군에 들어가 활동할 수 있도록 허락이 내려졌다. 이 일로 육군본부에서는 1951년 2월 7일 일반 명령 31호로 육군본부

인사국에 군종과가 설치되자 목사이면서 일반 장교로 복무하고 있던 김득삼 대위가 육군 초대 군종과장으로 임명을 받아 최초로 육군에 군종제도가 자리를 잡게 됐다.

2) 군종장교 정착

1951년 2월 28일 제1기 군종으로 30여 명의 목사, 신부가 입대하여 대구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고 무보수 촉탁 문관으로 각 부대에 배치되었다. 그런데 군부대에 배치되었지만 계급장 없이 문관으로 활동하는 데는 많은 제약을 받았다. 특별히 군 조직은 계급사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문관으로 활동하는 이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1년 3개월 간의 무급 문관의 시대를 마감하고 군 계급 사회로의 진입을 위한 수순을 밟는 일환으로 1952년부터 6월 16일 이후부터는 유급 문관으로 일을 하였다. 다시 육군본부에서는 이들에게도 목사 안수 연한에 따라 중위로부터 시작해서 대위, 소령까지 계급을 부여하였다. 1954년 1월 12일에는 일반명령에 의해 군종감실이 설치되면서 그 업무는 더욱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마지막으로 대령까지 계급을 달고 군종참모로서 군종 업무를 지휘 감독함과 동시에 민간 교회와 유대를 갖자 군종 업무는 더욱 활발해지고 그 어느 때보다 군목의 사기는 진작되었다.

한편 해군에서는 이보다 훨씬 앞섰다. 이미 정달빈 목사를 정훈 장교로서 활동을 하게 하였지만 해군작전 제34호 명령으로 해군본부에 의해 한국군 창설 이래 제일 먼저 군목실을 설치하였다. 1950년 12월 6일에는 추인봉 목사를 임명하여 군종업무에 종사토록 하였다. 다시 12월 12일에는 각 군에 중군 목사를 두라는 대통령 명령에 따라 해군 군종장교 복무규

정을 법제화하였다.

이에 공군도 그냥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공군 본부에서는 1951년 11월 대구에 있는 연병장에서 공군 군목 업무 발족식을 거행하였다. 역시 해군이나 육군이나 공군 모두 국가의 요청에 의해 군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킴과 동시에 장병들의 상담에 응하면서 군선교의 장이 국가로부터 보장을 받아 모든 교단에서 대대적인 환영을 받게 됐다.

4. 통합측 군선교부 활동

1) 군목위원회 조직

군 내부의 군종 활동은 각 교단마다 큰 기대를 갖게 됐다. 더욱이 영락교회의 한경직 목사는 군대는 “황금어장”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군목 주일을 지키도록 제안하자고 했던 일이 있었다. 이 일로 장로교에서는 최초로 총회 내에 군목위원회를 설치하게 됐다.

군목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전필순, 백낙봉, 정규태, 김현정, 황희섭, 이근호, 김재석, 조승재, 나덕환, 김석진, 명신흥, 이원영, 박내승, 강문호, 이승길 등을 위촉하였다 (1952. 4. 29., 제37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제37회 총회록).

군목중앙위원회에서는 매년 12월 첫 주일을 군목주일로 지키기로 협의하자 총회에서는 즉석에서 결의를 했으며, 이 일로 군목중앙위원회에서 예장에 속한 군목들을 각 교회에 배치하여 그 날 설교를 담당하고 군선교의 필요성을 역설하였

다. 이날 특별헌금은 군목의 선교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헌금을 군선교 지원에 사용토록 하였다.

이처럼 군목중앙위원회의 발족으로 또 하나의 조직이 출범하게 됐다. 1952년 중군목사위원회를 발족하였는데 이 위원회는 4개 선교부(남북 장로교, 호주 장로교, 캐나다 연합교회)에서 각 1인씩을 파송하고 한국교회에서 3인으로 구성하여 적극 지원키로 하였는데 당시 파송 받은 군목은 예장에서 목사가 50명, 전도사가 120명으로 전체 교파에 대한 예장이 차지한 비율이 51.9%가 됐다.

따라서 신학교에서 신학을 이수한 졸업생들이 군목에 자원 입대하여 광주 상무대에 있는 보병학교에서 일정한 기초교육을 받고 중위로 임관하여 각 부대에 배치되는 군목들의 수가 점점 증가하자 군선교는 더욱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2) 통합측 군선교부 조직

예장 통합측 총회에서는 전도부에 예속됐던 군목부를 상임 부서로 승격시키고 군신자화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다시 군목부를 군선교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예년에 실시해 오던 사업을 계속 진행해 왔었다. 그런데 해마다 본 교단 출신의 군목 감소현상 때문에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다. 본 교단 출신 군목들은 빨리 제대하여 일반 목회를 하려고 하는 목회자가 많아 군목은 국민으로서 군 의무를 마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1년에 한 차례씩 군목과 군목부원이 한자리에 모여 군목수련회를 갖는 등 행사가 있을 때마다 독지가의 도움을 받곤 하였다. 군목의 생활비로는 군종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어서 지교회에서 군목과 자매결연을 맺

고 다소의 목회비를 지원하고 있고 때로는 지교회, 여전도회 등지에서 위문방문을 실시하면서 군목활동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해 가곤 했다.

신임 군목 훈련 중(16주) 생활비 보조비를 해당 노회가 부담하도록 해 달라는 청원은 허락하기로 하다(1977. 9. 15-19., 대한예수교장로회 제62회 총회 회의록).

군목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목회비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총회에서 몇 차례 결의를 하였지만 그 일이 잘 이행되지 않고 있었다. 때마침 군목 출신인 온태원 목사가 최초로 군목부 직원으로 일을 하게 됐다. 온태원 목사가 군목부에 부임하면서 군 목회비 후원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1977년 제62회 총회시 군목부장 김윤식 목사께서 전군신자화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군목부 업무를 맡은 간사 1인을 요청하자, 총회의 허락을 받고 때마침 군에서 예편된 온태원 목사를 간사로 청빙하게 됐다. 총회에서는 그의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괄목할 만한 일을 해 냄으로써 다시 1980년 제65회 총회에서는 군목부를 군선교부로 명칭을 바꾸고 군선교부의 실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군선교부의 초대 총무로 온태원 목사가 선임됐다.

온태원 총무는 군선교부의 사업을 파악한 후 군종 장학금 5천만 원을 설정하고 모금운동에 나섰다.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장학기금 5천만 원이 남아 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1985년 8월 말 현재 군종 장학금 기금 25,000,000원과 군선교 기금 5,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확보해 놓고

있다. 이러한 기금은 개 교회나 노회에서 많은 지원이 있었지만 여전도회전국연합회의 지원금은 큰 힘이 됐다.

3) 군신자화 운동

군목들의 기동성을 살리기 위해서 오토바이 보내기 운동과 승용차 보내기 운동에 많은 교회가 참여하여 90cc 오토바이 2대를 지원하였으며, 역시 승용차 2대를 지원하여 군업무에 기동성 있게 대처하도록 기증하였다. 군중업무 보급지원은 교통수단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군목들 개인에게도 따로 후방교회가 군목 활동비를 지원해 주고 있었다. 이러한 일은 매년 자매결연을 맺었던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서 군신자화운동에 큰 보탬이 되었다. 1985년 8월 말 현재 31개 교회에서 5,850,000 원을 지원하였다. 따라서 총회에서 결의한 군목주일을 매년 실시하는 교회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교회도 많다. 그러나 1984년 12월 51개 교회와 노회가 군목주일을 지키고 군선교부로 현금을 보내주며, 그 액수는 5,662,820원이었다. 군목주일 현금으로 수입된 재정은 모두 군목 활동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서 군목들에게는 큰 힘이 됐다.

매년 실시해 온 군선교부 정책협의회는 1년에 1회씩 모이는 이 모임을 보다 활성화시키었으며, 군목수련회도 적극 지원하였다. 여기에 군선교부 정책세미나가 개최되면 언제나 군선교부 부원 및 실행위원, 각 노회 군목부장 등이 참가하여 군선교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지노회에 돌아가서 군목부가 모일 때나 노회가 개최될 때면 항상 군선교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한국교회가 새롭게 인식하고

군목지원에 더 힘을 쏟게 됐다.

4) 군목 감축과 민간인 목회자의 협력

군선교부는 총회 안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부서이다. 국토방위를 맡고 있는 60만 대군을 대상으로 하는 군선교는 본 교단에서 가장 주요하게 여기고 있다. 여기에 군선교 실행위원회 위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군종사관 후보생 장학위원회를 구성하여 군목으로 지원하는 신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매년 37만 명이 새로 입대하고 37만 명이 제대하여 사회로 나가고 있다. 그러므로 60만 국군장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키는 일은 전 민족을 복음화하는 지름길이라 하겠다. 우리 나라 상황으로는 교회가 교파를 초월하여 화해와 일치로 연합, 최우선 사업으로 실시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선교현장이 군대임을 인식케 됐다.

군선교부의 중요성을 인식했던 군선교부에서는 매년 온태원 총무가 지난 1년간의 사업 보고를 할 때마다 박수를 받았다. 그래서 총무는 실행위원회가 모일 때 보다 군종 장교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은 목회 자료를 제공하였다.

군선교가 활발하게 진행하던 중 김영삼 대통령 문민정부가 들어서자 1992년 그의 공약에 의해 불교의 불승은 90여 명 증가하였으며, 그 대신 군종장교는 280 명으로 감소되었다. 이러한 관계로 본 교단에서 파송했던 군종장교도 자연히 감소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지게 됐다. 이러한 처지에 놓여지자 군선교의 최일선에 있는 군목활동의 기동성을 살리기 위해서 1993년 승용차 12대를 보급하였으며, 군선교 취약 지역에 민간인 교역자를 29개 처나 파송하였다. 문서선교로 6종

의 도서를 22,080권 보냈으며, 1993년 말에는 군선교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예비역 군목회를 발족하였는데 회장은 총무인 온태원 목사가 맡아 수고를 하였다. 군선교부는 연중 행사인 군선교 정책협의회를 비롯해서 군선교 후원교회협의회, 군중병 영성훈련 지원, 군목 결연 활동 지원사업, 군선교 현장 방문지원, 군인교회 지원 및 민간인 교역자 파송, 장병세례식 집중지원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청소년 교인의 성장은 둔화되는 형편이었지만 군인신앙의 성장은 각 노회, 지교회 단위별로 진행되어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5. 군선교부와 황금어장

군선교의 중요성을 인식했던 군선교부에서는 특별히 한국장로교출판사에서 매년 발행하는 목회와 자료집을 본 교단 소속 50여 명에게 지원하는 일을 1990년부터 2001년 1월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다. 군선교부 편으로 총무 온태원 목사의 저서인 1991년 <군선교신학>, 1992년 <하나님과 나라를 위하여>를 한국장로교출판사에서 각 2,000부를 발행하여 전 군중 장교에게 배포하였다.

군선교부의 원활한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매년 군선교 정책협의회를 비롯해서 군선교 후원교회협의회, 군중병 영성훈련 지원, 군목 결연운동 지원사업, 군선교 현장 방문지원, 군인교회 지원 및 민간인 교역자 파송, 장병세례식 집중지원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였다. 획기적인 사업은 1993년 1월 22-30일까지 러시아 군목제도 협의를 위해서 온태원 총무, 군목

회 고문인 문은식 목사 등이 러시아를 방문한 것이다. 이들의 방문 결과로 1993년 12월 16일부터 19일까지 러시아 군장성(주요책임자) 4명을 초청하여 이들에게도 한국 군목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협의하였다. 이후 러시아도 군 장교(국방대학원 재학생 45명)들이 모스크바 장로회신학대학에서 야간으로 신학 수업을 받고 장차 군선교로 활동하려고 준비하고 더 나아가 군목제도를 도입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리라고 모두들 기대하고 있다.

1995년은 군선교 45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그 동안 군선교 사업은 한국교회 성장에 엄청난 기여를 하였다. 군선교 현장에서 1995년 매월 1만5천여 명에서 1만6천여 명이 일시에 세례를 받았다. 지난 1996년 6월 8일 육군 제2훈련소에서 50여 명 목사의 집례로 6,534명의 훈련병에게 세례를 집례한 것은 한국교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만큼 선교사업이 주요하기 때문에 온태원 총무는 재직 시 총회 군선교부에 대한 군선교 장기발전 계획을 3차 5개년 계획을 세워 놓고 있었다.

1차년도(1991-1995) 전체군목의 1/6(약 55명), 2차년도(1996-2000) 전체군목의 1/5(약 65명), 3차년도(2001-2005) 전체군목의 1/4(약 85명) 확보, 여기에 우수한 자원확보 관리 운영과 군중사관 후보생 전체 장학회, 장병복음화 계획은 “장병 50% 신자화”, 군목 및 군중병 영성훈련 강화, 간부양성화 집중지원, 군인교회 지원 확대, 군선교 목회자료 발간, 수세장병 전산관리 및 후방교회 연결 등이다. 이미 군목생활을 경험했던 총무 온태원 목사는 3차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중 후배인 서봉수 총무에게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6

년 9월에 부임한 서봉수 목사는 군목의 경험이 있기에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지만 군중병 영성교육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군목의 T/O가 부족한 탓으로 군중병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는 사단별로 군목들이 직접 나서는 일에 적극 협력하였다.

특별히 기억할 일은 <선교비전 2020>이 1996년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고려파크호텔에서 모여 이필섭 장로(전 합참의장)의 특강에 군선교가 얼마나 주요한가를 다시 한 번 일깨워 주는 기회가 됐다. 장병 세례식은 육군에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군, 해병대, 해군에서도 여기에 따른 지원금이 만만치 않아 장병세례식에 1년 예산을 5,200,000원을 세웠다.

군 통합사령부대가 충남 계룡산쪽으로 옮겨 가자 군선교부와 군선교 후원회의 활동으로 5년 만인 1996년 4월 25일 육·해·공군 본부 새 성전 헌당식(연건평 2,285평, 총 공사비 120억 원 군선교 역사기념관)을 갖고 육·해·공군 참모총장 및 합참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헌당식을 거행하였다(1996. 9. 12-17., 대한예수교장로회 제87회 총회 회의록).

그러나 1997년 5월에 뜻하지 않게 육군 특수전 학교에서 군중활동에 대해 불교가 문제를 야기하면서 언론과 일부 정당에서 불교의 처사에 대해서 지지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여기에 천주교 신부인 군중실장도 기독교 군중 활동에 대해서 폄하의 발언을 야기하자 기독교에서 군목을 파송하고 있는 10개 교단협의회에서 군중 사태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이에 대한 대처를 강력하게 하였다. 정부에 항의성을 나타내는 발언을 중

합하여 김영삼 대통령을 비롯해서 관련된 인사, 신문사를 방문하여 항의를 한 바 있다(1997. 9. 23-26., 대한예수교장로회 제82회 총회 회의록).

군선교 업무 중 빼놓을 수 없는 새로운 이벤트는 “비전2020”이었다. 이 일은 국군을 통해 한국 전체 인구의 75% 이상을 신자화하겠다는 운동이다. 그 동안 꾸준한 군선교부의 지원과 군선교부의 후원으로 다른 종파에 비교해서 기독교 신자가 전체 군인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비전2020”은 75% 이상 확보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통계이다. 또한 군선교부에서 제85회 현의했던 2개 안건인 1) 군선교부 총무 서봉수 목사의 임기만료에 따라 재인준해 달라는 건, 2) 총회산하 각 노회 러시아 군장교 1명과 자매결연을 맺어 모스크바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수업 지원을 위한 장학금으로 매월 20만 원을 보조하도록 해 달라는 건을 만장일치로 결의해 주었다. 특별히 1999년과 2000년에 걸쳐서 신축한 교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15사단 신교대교회 6천만 원(명성교회)
 2. 17사단 충성교회 11억5천만 원(영락교회)
 3. 52사단 철마교회 1억 원(안양제일교회)
- (2000. 9. 25., 대한예수교장로회 제85회 총회 회의록)

이처럼 새 예배당을 건축했을 때 사단장은 말할 것도 없이 1주일 내내 훈련을 받고 있는 병사들에게는 좋은 안식처가 됐다. 끝으로 군선교부의 사업은 이미 앞에서 지적했던 대로 1년에 1회씩 군선교부 전체 정책협의회를 비롯해서 실행위원회, 임원회 등의 회의를 거쳐, 일선장병에게 승용차 보내기

운동, 군목 및 군중 사병 영성훈련, 각 교회의 부대방문 위문 예배, 각종 진중 세례식 등 다양한 일들을 해 왔다. 이중 육군 훈련소 세례식에 수세자 4,959명(2000. 4. 22. 연무대 연병장 18,000,000만 원 지원)이나 참가하여 놀라운 실적을 나타냈다(2000. 9. 25., 대한예수교장로회 제85회 총회 회의록).

이외에도 많은 노회와 교회의 협력으로 진중 세례식을 배플 때는 목사들과 장로들이 총동원하여 협력해서 군신자화 운동에 매진하고 있음을 볼 때 총회가 벌이고 있는 “비전 2020년”은 성공하리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노인들만이 남는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 현재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의 신자가 증가하지 않고 있다. 매년 37만 명이 세대하고 37만 명이 훈련병으로 입대하는 현실에서 이들에게 신자화 운동을 전개한다는 것은 자연히 청년들로 메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6. 통합측 군선교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1) 통합측 군선교부의 장례식날

통합측은 2003년 9월 23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제88회 총회가 인천 주안교회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장 밖에서는 농어촌부를 살리라는 예장농목회협의회에서 128명의 이름으로 성명서를 내고 농어촌부를 살리자고 캠페인을 벌였다. 또한 군선교부도 이미 고급장교 출신뿐만 아니라 군목출신들도 여기저기 주간지 신문에 군선교부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일찍이 존재의 이유를 발표하였다. 역시 회의장 밖에서도 군선교

부를 살리라고 외쳤지만 결국 전도부, 농어촌부, 군선교부는 기구를 축소하여 국내선교부로 기구개혁이 통과되면서 군선교부는 장례식을 당하고 말았다.

이때 군대는 “황금어장”이라고 부르짖었던 한경직 목사가 살아 계셨다면 이렇게 말살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교인은 감소되고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외면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은 군선교부를 말살함으로써 군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우매한 자들만 있는 집단체로 전락하고 말았다.

2002년 9월 대한예수교장로회 제87회 총회시 총회 창립 90주년 기념으로 “생명 살리기 10년 선포식”을 거행한 일이 있다. 생명 살리기는 농어촌과 군선교부에서 해야 할 일들인데 무슨 일을 하려고 “생명 살리기 10년 선포식”을 거행했는지 알 수 없다. 이미 각 교회마다 “비전2020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 운동은 군대는 황금어장이기 때문에 군선교에 전국교회가 기도하고 이 일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여기 저기서 외치고 있다. 결국 예장 통합측은 군선교와 농어촌 선교에 대해서 이미 포기한 상태로 볼 수밖에 없다.

2) 비전2020에 힘을 쏟아

이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군선교부는 장례식을 거행하였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이를 미리 알고 1998년 “비전 2020”을 제시해 주어서 이 일을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가 하도록 인도하셨다. 이 운동은 군선교를 통해서 한국의 전체 인구 중 75%를 기독교 신자로 만들겠다는 운동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기독교 인구는 3,700만 명이 되는 통계로 나타난다.

하나님께서서는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의 사무실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렇게 “황금어장”이라 부르짖었던 한경직 목사는 비록 우리와 생을 달리했지만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의 사무실 때문에 늘 걱정하던 한경직 목사의 그 뜻을 알았던 영락교회 최창근 장로가 1988년 “한경직기념관”으로 준비해 두었던 그 자리에 사무실을 이전하게 되었다. 이 엄청난 일을 하기 위해서 온 직원들과 한국교회가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한가. 여기에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에서는 지방 조직을 강화하고 그 지방을 지회라 부르면서 중부지회, 대구경북지회, 동부지회, 전북지회, 울산지회, 강원지회, 강원영동지회, 부산지회, 광주지회, 제주지회, 충북지회, 경남지회, 전남동지회, 충남지회 등을 두고 총가동하고 있다.

7. 결론

하나님은 이러한 날이 올 것을 아시고 한국군선교후원회가 예장 통합측 본부와 가까운 거리에 자리를 잡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예비해 두셨다. 앞으로 예장 통합측이 할 수 없는 그 일까지 꺼안고 갈 수 있도록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통합측의 군선교부를 장려했지만, 하나님은 한국의 젊은 군인을 사랑하셔서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있음을 믿고, 예장 통합측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한국군선교후원회에 적극 참여하여 군대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사회에 돌아와서도 신앙으로 더욱 장성하여 다시 통합측 군선교부가 부활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을 기대한다.